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고후시
시책 명칭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가요이노바’와 ‘가사도우미 등 생활지원’의 창출		
개　요	○고후시는 집에서 잘 나오지 않는 고령자의 ‘가요이노바’로서 ‘이키이키 살롱사업’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139 개소(정(町)단위로 설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한 달에 1 번만 개최되어 외출할 기회의 창출로는 이어지지만 개호(간병)예방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개호서비스를 받지 않는 고령자에게 가사 등의 생활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서포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산액	사업 미실시	（ U$환산 ）	

１．과제(현재 상황)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에 어떠한 니즈가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협의하는 장을 초등학교 교구별로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시책에 온도차가 있다.

○이키이키 살롱은 2010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설립은 근년에는 연간 4, 5 개소 정도로 증가가 부진하다.

○또한, 살롱에서의 활동은 다과회나 가라오케 등이 많고 체조 등의 개호예방 활동은 부진하다.

○생활지원서비스는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의 고령자댁을 방문하여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제도설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의 매칭 등 난도가 높은 사업.

○현재는 제도설계를 추진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을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２．목표(장래상)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복지를 협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구별로 협의의 장 설치를 추진한다.

○고령자의 ‘가요이노바’는 소일할 수 있는 장과 개호예방의 장으로 기능을 나눠 설치를 추진한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도 이 활동이 개호예방이 되므로 실시하는 단체 수를 늘려간다.

３．시책내용

(개요)

○협의의 장에서는 지역의 과제를 설문조사 등으로 파악하여 제공을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주민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매칭을 도모한다.

○개호예방으로서의 ‘가요이노바’는 보건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의 전문직이 ‘가요이노바’를 방문하여 개호예방의 동기부여와 함께 셀프플랜으로서 ‘가요이노바’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호예방에 도움이 될만한 행동을 지원한다.

○생활지원 서비스의 경우, 청소와 조리, 세탁과 같은 가사 지원을 중심으로 일정한 강습을 받은 생활지원 서포터가 자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협의의 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구의 90% 정도에서 제 1 회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 회를 실시해 달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2 회째를 실시하였다.

○'가요이노바'는 139 개소의 이키이키 살롱 중 대부분은 월 1 회 개최되는데 20 개소 정도의 살롱은 주 1 회 정도 개최되므로 이러한 살롱 중에서 개호예방의 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포터 양성에 있어 70 명이 강습을 받았다.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역과 지역과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관심이 적고 지역과제를 밝혀내거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키이키 살롱의 리더가 될만한 일꾼이 없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지원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어느 정도로 할지, 개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했을 경우의 자기부담금과의 비교로 인해 설정이 어렵다.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다자이후시
시책 명칭	고령자의 외출 촉진과 삶의 즐거움 찾기,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포인트 사업’		
개　요	・다자이후시 인구:71,598 명, 고령화율(65 세이상인구):27.6%(2019 년 3 월말 현재) ・후쿠오카시의 베드타운으로서 1960 년대 중반부터 1970 년대에 걸쳐 구릉지의 택지개발이 진척되어 당시 전입해 온 세대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있으며 독거 고령자 세대와 고령부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의 외출 촉진, 개호예방을 목적으로 건강진단·암진단이나 개호예방교실 등 시가 지정한 대상사업에 참가하면 포인트가 부여되는 ‘건강증진 포인트사업’을 2015 년도부터 개시. 모인 포인트수에 맞춰 시내의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의 끝자리수를 자치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지역에서의 즐거움 찾기,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예산액	5,992,000 엔 (　현지통화　)	56,530 미달러 (　U$환산　)	

１．과제(현재 상황)

○건강진단 수진률이 낮다. 특정 건강진단수진률(2017 년도) 다자이후시:31.7%, 현 평균:33.8%

○고령자가 집안에 고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자치회 등의 근린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삶의 즐거움 찾기와 건강증진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２．목표(장래상)

○시민들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고령화기를 맞이하기 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요개호 상태가 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줄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킨다.

３．시책내용

(개요)

○40 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의 수진이나 건강증진사업 등에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한다. 생활습관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40 대부터 건강에 대한 의식을 높여 건강증진, 개호예방으로 이어간다. 아울러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포인트 기부라는 형태로 지원하여 활성화를 도모한다.

【대상사업】

① 건강증진·개호예방형

(예)시의 건강검진, 직장의 건강검진, 개호예방교실, 걷기모임, 맨손체조, 건강 페스티벌 등

② 문화예술활동형

(예)시민문화제, 시민음악제, 마호로바 시민대학(고령자대학), 인권축제 다자이후 등

③ 지역건강증진형

(예)교구 자치협의회 주최 사업, 자치회 신청사업, 장수 클럽연합회 주최사업 등

대상사업별로 25~200 포인트를 설정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암검진, 집단검진 결과설명회, 지역건강 페스티벌 등의 포인트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시의 검진과 지역건강증진사업에의 참가를 촉진하고 있다.

【포인트 교환】

1000 포인트 달성⇒상품권 1000 엔분, 2000 포인트 달성⇒상품권 2000 엔분,

3000 포인트 달성⇒상품권 3000 엔분, 5000 포인트(상한) 달성⇒상품권 3000 엔분+ 후쿠오카현 쌀 3kg,

※1000~3000 까지의 포인트 끝자리수는 본인이 사는 행정구의 자치회에 기부할 수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5 천포인트 달성자가 매년 증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개호예방의식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걷기모임, 맨손체조 등 계속형 건강증진활동 참가자가 증가하여 생활습관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걷기모임 회원수 2015 년도 531 명⇒2018 년도 2,387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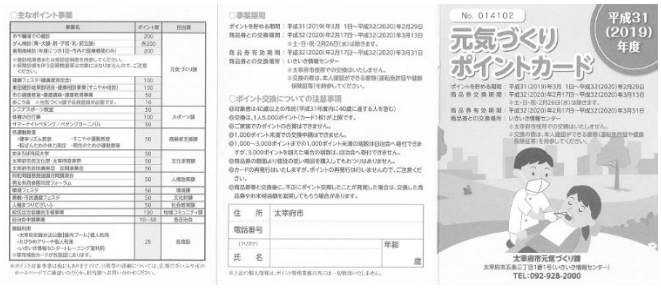
○지역건강증진형 사업을 포인트 대상으로 하고 아울러 포인트의 끝자리수를 자치회에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회나 교구 자체협의회에서의 건강증진사업 발족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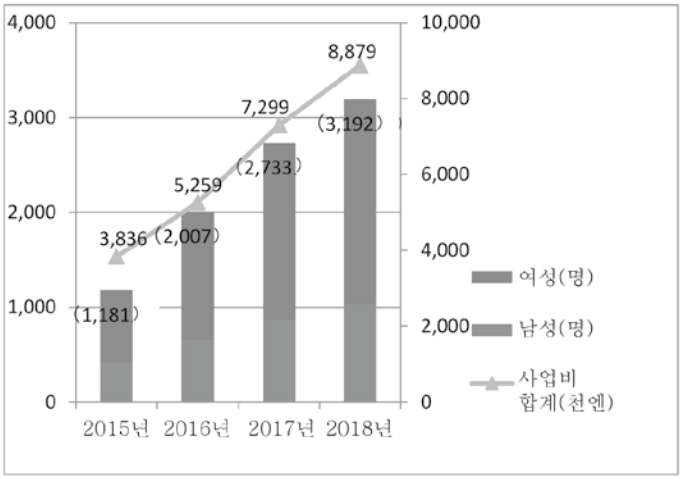
○사업의 주지계발이 진전됨에 따라 참가자가 증가함과 아울러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다.
포인트 환원율의 재고나 건강검진을 필수항목으로 하는 등 참가자의 의식을 저하시키지 않고 사업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상승효과로서 기대하고 있던 검강검진 수진율 향상은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참고자료



2019 년도 건강증진 포인트 카드(오른쪽:표면, 왼쪽:뒷면)



(도표 1) 5000 포인트 달성수·사업비 추이

○건강검진회장에서의 '건강증진 포인트' 부여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나라시
시책명칭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충실		
개　요	나라시는 1300 년 이상전에 고대 일본의 도읍으로 번성하여 당시의 쇼무천황의 왕비였던 고묘황후에 의해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히덴인', 그리고 가난한 병자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시설로서 '세야쿠인'을 설치하여 자선활동을 펼쳐 현재의 복지로도 이어지는 제도가 이미 실시되었다. 1972 년에는 전국에 앞서 '복지도시 선언'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지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의료제도,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서비스를 충실화시켜 왔다. 단 근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도 있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제가 다양화, 복잡화되어 행정이 담당하는 공적 서비스만으로는 한계에 달해 있다. 특히 치매를 앓는 고령자의 증가 등 새로운 과제도 포함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갈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시에서는 고령자의 돌보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치매시책'을 실시하는 외에 지역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 민간사업자와의 협동으로 공적인 복지 서비스와 지역주민이 서로 돕는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산액	28,850 천엔	(U$환산)	

１．과제(현재 상황)

나라시에서는 10 년간 인구가 368,592 명에서 356,352 명으로 12,000 명 이상 감소한 반면, 65 세 이상인 사람은 82,677 명에서 108,849 명으로 26,000 명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15 세 미만 인구는 10 년간 6,700 명 이상 감소하고 있어 장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가 감소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매고령자의 배회, 단신고령자의 자택고독사, 80 대 고령자와 50 대 무직 중고년 세대 이른바 '8050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치매 고령자는 국가의 추계치를 활용한 시산에 의하면 나라시에서도 5 년간 5,500 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개호보험제도가 개시된 2000 년에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정자수가 약 6,000 명이었는데 2018 년에는 20,000 명을 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고령자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를 포함한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는 결코 특별한 병이 아니므로 다른 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 진단하여 치료와 케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치매기능 개선과 중증화 방지로 이어져 치료와 케어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또한 본인의 의사로 치료법과 현재의 생활을 재고하여 가족과 함께 앞으로의 생활도 선택할 수 있다는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지역 전체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기회를 통해 보급·계발할 필요가 있다.

２．목표(장래상)

외톨이 0(제로) 프로젝트 (제 3 차 나라시 지역복지계획 슬로건)

⇒ 치매를 앓더라도 살던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공생사회의 실현

●2022 년 3 월까지 치매 서포터를 3 만명 양성

・2019 년 3 월 현재　2 만명

●2022 년 3 월까지 치매카페 개설수 30 개소

・2019 년 3 월 현재　15 개소

●초기지원 집중팀　14 팀

・2019 년 3 월 현재　1 팀

３．시책 내용

（개요）

◎치매 초기 집중지원팀·치매지역지원 추진원의 배치

치매지역지원 추진원은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의료기관과 개호서비스, 지역의 지원기관 사이의 연계지원과 치매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 등을 실시한다.

치매초기집중지원팀은 치매인 분과 치매일 우려가 있는 분, 그 가족에게 조기에 관여하여 지금껏 살던 익숙한 지역과 자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팀으로 치매 전문의와 전문지식을 가진 보건사 등의 의료직과 사회복지사 또는 개호복지사 등 복지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돌보기 네트워크의 구축

돌보기와 긴급시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배회’에서 ‘안전한 홀로걷기’ 마을을 지향하여 치매환자가 행방불명 되었다는 설정 하에 2018 년도에는 시내 전역에서 치매환자 역할자에게 말을 거는 체험을 해 보는 나라시 치매 돌봄 말걸기 모의훈련도 실시하였다.

◎재택의료·개호연계지원센터의 개설

의료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병원과 시설뿐만 아니라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개성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계 서포트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라시 권리옹호센터의 개설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 등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인 성년후견제도의 보급촉진을 위해 나라시 권리옹호센터를 개설한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지역 전체의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다.

・치매를 앓는 고령자도 포함하여 본인의 희망으로 라이프 플랜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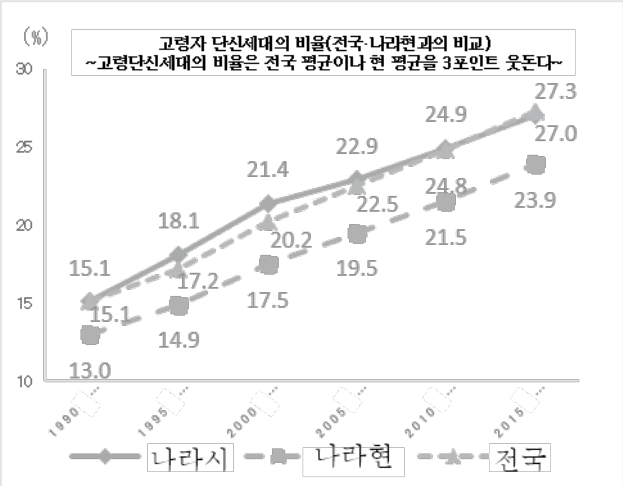
・과제가 중증화되기 전에 다양한 예방대책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해결을 위한 활동체제가 구축되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가족과 지역에서 이해가 깊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의 이해(치매환자로서의 자각)가 못미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수익자 부담 등 안정된 재원확보의 검토

４．참고자료



자료:국세조사(각년 10 월 1 일 현재)

나라시의 치매고령자의 장래 추계

	실적치				추계치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20 년	2025 년
총인구	360,310	360,893	359,157	357,488	350,000	334,900
고령자인구	102,416	104,722	106,674	108,268	109,000	110,200
고령화율	28.4%	29.0%	29.7%	30.3%	31.1%	32.9%
치매유병(추정)수	13,244	14,309	14,656	15,028	18,748	20,938
치매유병(추정)율	12.9%	13.7%	13.7%	13.9%	17.2%	19.0%

▶인구 및 고령자인구:국세조사(2015 년도까지는 실적치), 나라시 제 4 차 지역복지계획 후기 기본계획 및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한 국세조사에 기초한 추계

▶치매유병(추정)수:2018 년까지는 요개호요지원 인정자 중 치매유병(추정)수

▶치매유병율:2018 년까지는 실적율, 2020 년 이후는 ‘일본에서의 치매 고령자인구의 장래추계에 관한 연구’에 의한 추계율

테마명	지역전체가 만들어가는 복지·의료의 충실화	지방정부명	덴리시
시책 명칭	지역사회의 서포트와 서로 돕기의 창출		
개　요	○덴리시에서도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에 사회보장적인 사고가 요구되기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의 서포트, 서로돕기를 통해 해결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생활상의 모든 문제를 행정 서비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지역주민의 관계성이 희박해져 과제해결은 보다 곤란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육아지원, 인지증(치매)대책, 장보기 곤란자 지원 등 '서로 돕는 마을 덴리'를 슬로건으로 ①지역주민들간의 연계, ②다양한 형태에 따른 공민(公民)연계를 지향하는 시책이 펼쳐지고 있다.		
예산액	①　0 엔 ②　10,119,000 엔（3 년치）	①　0 $ ②　93,434 $（for 3years）	

１．과제（현재 상황）

○1996 년을 피크로 계속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 또한, 세대구성이 핵가족화, 단신화함으로써 지역에서 주민들의 고립화 경향이 진행되고 있다.

○현황의 행정서비스 상태로는 대응할 수 없는 몇가지 서비스에 걸친 복합적인 생활과제나 서비스와 서비스 사이에 속하는 생활과제 등이 늘고 있다.

２．목표（장래상）

○행정주도에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이 확립되어 있다.

○행정과 시민과의 연계 및 성과연동형 지불방식을 비롯한 관민연계 체계에서 행정부담의 최적화를 통해 시민을 계속적으로 서포트 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행정운영을 지향한다.

３．시책내용（개요）

【지역의 비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의 창출】…①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먹거리 지원이었던 '어린이 식당'이 덴리시에서도 다세대 교류를 통해 지역민들을 잇는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해 나가며 확산되고 있다.

・육아지원으로서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방과 후 학습학원이 지역의 자원봉사자가 중심이 되어 실시되고 있다('마치카 주쿠'라고 명명). 또한, 거기에 참가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포인트가 부여되고 포인트가 모이면 장래에 되고 싶은 직업(꿈)의 전문가와 교류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꿈 지원 프로젝트'라고 명명).

【관민연계의 새로운 형태로 지속가능한 행정운영을 지향】…②

・성과연계형 지불사업은 행정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적 서비스 사업을 위탁하여 제 3 자 기관이 평가한 성과에 맞춰 자금제공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시책으로 성과를 동반하지 않는 보수지불이 없어지는 위험헤지(risk hedge)가 가능하다. 인지증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보장비의 억제를 지향한다. … '활뇌(뇌활성화)교실(인지증 예방교실)' 사업

・덴리시가 원래 영리활동의 장이 아니었던 공민관을 판매장소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전까지 회원들에게만 이용을 제한하던 민간사업자의 이동판매를 협정을 맺음으로써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내에서 거주지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상점이 없는 지역에 이동판매차를 불러들일 수 있어 장보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되었다. 또한, 판매장소는 지역민들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 역할도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어린이 식당'에 행정도 장소 제공이나 홍보지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등의 협력을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7 년부터 개시되어 2018 년 8 개소로 확대)

○성과연동형 지불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인지증 예방 '활뇌교실'이 참가자의 뇌기능 유지와 개선에 성공하여 보수가 지불되고 있으며 교실수를 늘려 실시되고 있다.(2018 년 1 개소⇒2019 년 6 개소)

○상품 매출면에서도 이동판매가 성공함으로써 그 횟수와 판매장소도 증가하여 종래구역 내의 내용 충실과 더불어 새로운 판매구역도 늘어나고 있다. (2017 년 2 초등학교구⇒2019 년 3 초등학교구)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덴리시의 지역사회에서의 서포트와 서로 돕기는 아직 불충분. 그 시책을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훌륭한 시책을 행정이 시민들에게 널리 주지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책의 중심이 되어 추진하려는 인재를 창출해 낼지 어떨지가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4. 참고자료

지역에서의 비공식적인 서비스 지원의 창출

어린이식당

마치카 주쿠

프로야구선수의 이야기 듣기

열심히 자습하는 어린이들

활뇌교실(인지증예방교실) 사업

관민연계의 새로운 형태로 지속가능한 행정운영을 지향한다

성과 연동형 지불사업의 이미지 그림

행정 덴리시

민간사업자
자금제공자

평가기관 게이오기주쿠대학